

제주도 <맹감본풀이(스만이본풀이)>의 구조와 의미

김형근*

<차례>

1. <맹감본풀이> 선행 연구 검토와 과제
2. '맹감'의 용례와 그 의미
3. <맹감본풀이>의 구조와 의미
4. 제주도 본풀이 아카이브 센터를 기대하며

국문요약

저승사자를 잘 대접한 스만의 신화로 알려져있는 <맹감본풀이>. 수렵수 호신에 대한 본풀이가 될 수도, 액을 막는 의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무가가 될 수도 있는 복합성이 <맹감본풀이>의 실상이다. 그러나 <맹감본풀이>의 핵심은 '해골'에 있고, 그 해골은 수렵을 직업으로 하는 조상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실제 본풀이에 부합되는 의례는 '맹감코사'였고, 오늘날 시왕맞이의 액막이 등에 불리는 것은 후대적인 변형이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따라서 <맹감본풀이>의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는 '사냥', '해골'이다.

지금까지 본풀이 연구가 그 서사성의 특징으로 인해 무가 자체만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의례와 부합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맹감본풀이>가 저승사자에 대한 본풀이가 될 수 없다는 의례 실상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맹감', '죽음', '저승사자'라는 카테고리 속에 우리의 인식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의례의 맥락 속에서 본풀이의 기능과 그 본풀이의 의미가

* 경기대학교 강사, 구비문학 전공

통하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제주도 곳곳 실상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기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멧감, 멧감본풀이, 스만이, 스만이본풀이, 사냥, 해골, 장자풀이, 황천혼시, 멧감코사

1. 〈멧감본풀이〉 선행 연구 검토와 과제

제주도 <멧감본풀이>는 <스만이본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서사무가이다. 스만이라는 인물이 사냥으로 업을 삼는 과정에서 해골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상으로서 잘 대접하여 부자가 되고, 정해진 명(定命)도 있다는 내용이다. 본고는 무가와 그것이 연행되는 의례를 통해 <멧감본풀이>(스만이본풀이) 의미를 분석하는 글이다. <멧감본풀이>는 현행 제주도 곳곳 속에서 유효한 본풀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의례의 맥락 속에서 살피고자 한다. 본풀이의 연구가 의례와 별도로 그 자체의 구비신화로 보고, 그 내적 의미들을 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구비신화가 온전히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은 곳이라는 연행에서이고, 이와 관련해서 그 신화의 내용을 밝혀야 비약 없는 신화의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 아울러 <멧감본풀이>의 특징과 관련하여 유사 무가인 함경도 <황천혼시>, 전라도의 <장자풀이>와의 비교도 이루어진다.

<멧감본풀이>는 여러 면에서 의문의 대상이다. ‘멧감’이라는 명칭 자

1) 예를 들어, 바리공주 무가를 그 자체로 해석하면서 저승의 천도자임을 밝혀도 지역에 따라 천도자로 관념하기도 하고, 그저 축원 무가의 한 등장인물로 관념하기도 한다. 전자가 서울곳에서 바리공주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곳곳에서 연행되는 무가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왜 그 곳에서 연행되는지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

체가 익숙하지 않으며, 저승차사(저승사자) 역할로 보았을 때 <차사본풀이>에서의 차사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그 무가의 내용이 함경도의 <황천혼시> 무가, 전라도의 <장자풀이> 무가와 유사한 점도 의문이다. 이런 의문들을 가다듬으면 곧 <맹감본풀이>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주요하게 두 가지 차원이다. 하나는 <맹감본풀이>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무가 자체의 서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례와 관련하여 <맹감본풀이>를 부르는 목적과 기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유사한 무가와 비교를 하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떨어져있는 곳에서 유사한 무가를 보유하고 있는가, 내용이 유사하다고 해서 그 의미와 기능이 같은 것인가 등의 문제들을 해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맹감본풀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몇 차례 있어 일정 부분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이 언급되었다.²⁾ 그 논의가 많지 않고 일정 부분 의의가 있기에 개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서대석의 연구는 본격적인 <맹감본풀이>의 연구는 아니지만, 한국의 서사무가를 분류하는 가운데 <맹감본풀이>를 <황천혼시>와 같이 '백년 해골형 서사무가'로 명명하였다. <맹감본풀이> 무가가 전반부의 해골을 잘 대접하여 장자가 되고, 후반부에 정명도 늘렀다는 점을 들어

2) 서대석, 『서사무가연구』, 『국문학연구』 8집, 서울대국문학 연구회, 1968.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집, 한국민속학회, 1997.

권태효,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민속학』 32집, 한국민속학회, 2000.

현승환, 『사만이본풀이 연구』, 『백록어문』 16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2000.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김현선,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 연구:특히 시왕맛이의 <지장본풀이>를 예증삼아』, 『한국무속학』 10집, 한국무속학회, 2005.

해골치성형 서사무가로 보았다. 본격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제주도의 무가 <맹감본풀이>와 함경도의 무가 <황천혼쉬>가 같은 유형의 무가라는 점을 들어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비교의 초점이 사자에 대한 대접을 통해 정명을 연장했다는 측면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최원오는 저승과 관련된 신화인 <천지왕본풀이>, <차사본풀이>, <바리공주>, <장자풀이>, <짐가제굿>, <황천혼쉬>, <맹감본풀이>를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라 명명하고 그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는 이계여행형과 치성차사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하였고, <맹감본풀이>를 <장자풀이>, <짐가제굿>, <황천혼쉬>와 함께 차사대접형으로 구분하였다. <맹감본풀이>와 유사한 내용의 무가와 비교를 통해 같고 다른 점을 분석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맹감본풀이>의 핵심이 ‘차사’인지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맹감본풀이>의 핵심은 사냥, 해골, 스만이에 놓여져있다. 그것은 의례와 관련해서도 분명하다. 제주도에서 저승사자를 초청하고, 망자를 인도하는 길라잡이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본풀이는 <차사본풀이>이고, <맹감본풀이>는 맹감고사나 굿 중 액막의 기능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승사자를 대접하여 정명을 연장했다는 설정은 해골을 접대한 결과로서의 의미이지, 저승사자와 관련한 것은 부차적이라 할 수 있다.

권태효는 6편의 <맹감본풀이> 이본을 검토하고, 육지의 <장자풀이>, <황천혼쉬> 무가와 비교를 하였다. 이 논문의 중요한 결론은 <맹감본풀이>에는 무엇보다 생업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기능이 있다는 점과 육지의 유사한 무가와 달리 백골을 섬겨서 수렵으로 부를 획득한다는 내용이 독자적임을 밝혔다. 이러한 특징을 제주도의 왕성한 당신본

풀이의 영향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일반신본풀이가 육지와 영향
 통해 유입되었다라든, 제주도의 독자적인 신화 형태를 창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이런 논의를 종합해보면 제주도 토착의
 당신본풀이와 육지로부터 유입된 신화가 엮이면서 <맹감본풀이>가
 창출되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도 <맹감본풀이>의 핵심은 백골(해골)
 과 관련한 신앙이라는 점에 있어 이 논문과 맥이 닿아있다. 또한 후반부
 내용, 즉 저승사자를 대접하여 명을 연장한다는 신화의 내용은 육지로
 부터의 신화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가능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이 논
 문에서 다루지 않은 이본들이 추가되었고, <맹감본풀이>의 전반부에만
 그 논의를 집중하였으므로 전체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승환은 <맹감본풀이>를 연명무가로 파악하면서도, 해골에 대한
 대접과 관련하여 수렴문화를 배경으로 생성된 무가임을 말했다. 다만,
 연명과 수렴 이 두 가지의 이질적인 내용이 하나의 무가 속에 공존하고
 있는지는 해명하지 않았다. 이수자는 제주도 큰굿을 연구하는 가운데
 <맹감본풀이>가 구송되는 의례 제차를 ‘맹감제’라 명명하였다. 현장에
 서는 보통 액막이라 불리는데 이수자는 ‘맹감제’라 명명한 것이다. 이 의
 례의 목적과 기능을 장수법, 방액법을 창안한 신에 대한 의례로 파악하
 고 있다. 김현선은 <지장본풀이>를 논하는 가운데 그 제의적 의미를
 해석하면서 <맹감본풀이>를 언급하였다. 시왕맞이에서 불려지는 세 본
 풀이인 <차사본풀이>, <지장본풀이>, <맹감본풀이>가 각각 어떤 의
 미를 담고 있는지 말하면서 <맹감본풀이>는 “액막이에서 저승의 정명
 을 비켜가기 위해서 차사를 대접해서 대수대명을 하는 것이므로 산 사
 람에게 의의가 있는 본풀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수자와 김현선의 논의
 는 <맹감본풀이>가 불려지는 오늘날의 제의적 맥락에서는 타당한 이
 야기이지만, 무가 자체에 천착해보면 일면의 진실에 불과하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논문이 어떤 부분에 대해 해명할지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를 정리하여 장차 본문해서 서술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맹감본풀이>가 연행되는 또는 관념되는 의례를 먼저 주목하고, 그 속에서 <맹감본풀이>의 기능과 목적을 살핀다. 두 번째로는 <맹감본풀이>의 이본 비교를 통해 공통 서사단락을 추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맹감본풀이>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함경도 <황천혼쉬>, 전라도 <장자풀이>와 비교를 포함한다.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점은 <맹감본풀이>가 마치 두 얼굴을 가진 본풀이라는 점이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며, 어떤 것이 본래의 얼굴인지 밝히는 것이다.

2. ‘맹감’의 용례와 그 의미

일반적으로 맹감은 ‘명관(冥官)’, ‘명감(冥監)’, 명감(命監) 등으로 해석하여, 저승의 사자, 곧 차사의 이칭(異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 <맹감본풀이>는 죽음의 세계와 관련된 존재라고 한다면 제주의 망자천도굿인 시왕맞이나 귀양풀이에 쓰여서 저승사자를 초청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기능의 무가로 <차사본풀이>가 있고, <맹감본풀이>와 그 기능을 양분하지 않는다. 즉, 제주도에서 저승사자(차사) 청배 기능은 오로지 <차사본풀이>만 갖추고 있을 뿐이고 <맹감본풀이>는 다른 기능으로 불려진다.⁴⁾ 따

3)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156쪽.

현용준, 「맹감본풀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 김형근·김현선,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 『정신문화연구』 31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39-271쪽.

라서 먼저 ‘맹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용례를 파악함으로 <맹감본풀이>를 이해해볼 수 있다. ‘맹감’의 용례를 파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의례를 담당하는 심방 또는 신앙민들의 제보를 통해, 무가를 통해, 그리고 <맹감본풀이>가 불려지는 의례의 전반적인 맥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1. 제보자들이 말하는 ‘맹감’

맹감은 우선 그 자체로 작은곳 또는 비념의 명칭이면서, 이 의례에서 중요하게 불려지는 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의례의 제목을 ‘맹감’ 또는 ‘맹감코스’라 하는데, 현재 민가에서는 전승이 끊긴 것으로 보인다. 단지 심방들의 증언과 노령의 일반인들에게 어렸을 적 봤던 기억이라며 이를 제보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생업의 풍요를 비는 신년제다. 위에서 말한 門前祭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이祭는 농업이나 수렵의 풍요를 비는 점에 중점이 있다. 따라서 農神인 ‘세경’이나 수렵신인 산신을 청하여 비는 행사가 주된 것이 되고, 문신, 조왕 등 울타리 안의 신들에게 가내 안전을 비는 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산신을 청하여 수렵의 풍요를 비는 告祀는 ‘山神맹감코스’라 하여 밤에 산에서 행한다⁵⁾.

이중춘 : 지금으로부터 맹감본을 풀겠습니다. 맹감본이라 한 것은 농사 짓는 분들이 밤에 산으로 가서 조용하게 제를 지내서 농사를 잘 되게 해주 십사하고, 또 소·말하는 사람들도 소·말을 잘되게 해주십사 해서 정성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삼명감(三命監)·삼차사(三差使)라 해서 차사님이

5)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233쪽.

인간에 주년국땡 소사만이라는 사람을 잡으러 올 때에 소사만이 그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차사님께 인정을 걸어서 대신에 땡 사람을 저승에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해서 집안에 궂인 액(厄)을 당할 때에 또 ‘멩감본’을 풀어서, 그와 같은 (본)을 받아서 이 액(厄)을 막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본을 푸는 겁니다.⁶⁾

멩감본풀이는 말과 소를 잘 키우고, 사냥이 잘 되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곳에서 하는 본풀이다. 농사를 지으면 멩감에서 모든 풍년이 되게 한다. 멩감은 들판에 가서 깨끗한 장소를 골라서 한다. 상은 차리지 않고, 띠를 깔아 그 위에다 제물을 차른다. 사냥을 하는 집에서는 산신놀이를 한다.⁷⁾

제보자가 어릴 때 잘살았던 큰아버지 댁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마당에 병풍을 쳐서 하는 곳으로 칠성도 함께 위했다. [제주시 삼양동 매촌 마을(도련2동)]⁸⁾

멩감제는 제보자가 어릴 때 본 것이다. 깨끗한 들에 나가 병풍(屏風)을 치고 제물을 차려 가정이 잘 되고, 집안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냈던 제의를 가리킨다. 심방들의 멩감제는 오늘날도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서귀포시 강정동]⁹⁾

위의 제보 내용을 정리해보면 멩감코스는 농업, 목축, 수렵과 관련한

6)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289쪽. 이 자료는 강정식, 『한국음악 제31집 제주도 칠머리당굿』, 국립국악원, 2000의 자료와 동일하다. 1991년 KBS에서 이종춘, 김윤수 등을 초청하여 녹음하였고, 이 음원을 2000년도에 국립국악원이 채록과 채보를 한 자료이다. 같은 제보자의 같은 녹음본을 각기 채록하였기에 미세한 표기상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자료이다.

7)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09. 228쪽.

8) 김동섭 외,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32쪽.

9) 김동섭 외,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145쪽.

생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집이 아닌 들판 같은 곳에서 치루었던 가정의 정기의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면을 통해 ‘**생업 풍요신으로서의 맹감**’이라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산신맹감’이라는 용례로 쓰이면 산신 내지 수렵신으로 그 대상 신격이 한정되어, ‘**수렵신으로서의 맹감**’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위 문면 중 이중춘 심방의 제보를 보면 ‘**액막이로서의 맹감**’이라는 의미가 있다. <맹감본풀이>의 내용 중 스만이가 해골을 잘 접대하고, 죽음의 액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내용을 들어 액를 막는 목적의 본풀이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제주도에서 가정의 정기의례로서의 맹감은 거의 사라진 반면 굿 중에서 액막이 제차에서 불려지는 <맹감본풀이>는 여전히 남아있다.

2.2. 무가를 통해 드러나는 ‘맹감’

다음으로 맹감의 의미는 무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맹감본풀이> 무가 자체는 다음 장에서 주요하게 분석할 부분이고, 여기서는 <맹감본풀이> 이외에 등장하는 ‘맹감’의 의미 파악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단서가 맹감본풀이(스만인본풀이)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구송하는 ‘들어가는 말미’에서이다. 실제 그 문면을 들여다보면 ‘맹감’이 무척 폭넓은 성격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맹감본풀이>와 함께 ‘들어가는 말미’가 함께 채록되어진 사례는 다음의 네 문면이다.

천양(天皇) 열두 맹감님(十二命監)도 느립서
 지하(地下) 열흔 맹감님도(十一命監) 느립서
 인황(人皇)은 아홉 맹감님(九命監)도 느립서

동(東)의 청(靑)멩감 서(西)의 백(白)멩감, 남(南)의 적(赤)멩감,
 북(北)의 흑(黑)멩감 중앙(中央) 황신(黃)멩감님도 느립서
 천양체스 관장(天皇差使命監)님도 느립서
 지왕체스 관장(地皇差使命監)님도 느립서
 인왕체스 관장(人皇差使命監)님도 느립서
 연직스제(年直使者) 월직스제(月直使者) 일직스제(日直使者)
 시직스제(時直使者) 관장님도 느립서
 옥황은 금부도스(禁府都事), 저승은 이원스제, 이승은 강림스제,
 물(水差使)엔 부원군 삼체스 관장님, 본당체스 신당체스,
 군광 신관 삼체스 관장님도 느립서 (이중춘 구연)¹⁰⁾

천양(天皇) 가민 열두(十二) 멩감(冥官) 지왕(地皇) 가민 열흔(十一) 멩
 감, [요령]

인양(人皇) 가민 아홉(九) 멩감

동(東)원 청멩감(靑冥官) 서(西)의 백멩감(白冥官) 남(南)원 적멩감(赤
 冥官),

북(北)의 흑멩감(黑冥官) 중앙(中央) 황신멩감(黃神冥官), [요령]

산으로 가민- 산신멩감(山神冥官),

물로 가민-, 요왕멩감(龍王冥官)

베론 가민 선왕멩감(船王冥官)-, [요령]

농사(農事)허는 집이는 세경멩감,

책 보는 집인-, 책불멩감(冊佛冥官),

삼심할망칩인 불돛멩감(佛道冥官)입네다.[요령]

심방칩이는 당췌멩감(堂主冥官)이 잇는 범입네다. (이용옥 구송)¹¹⁾

지왕쳐서님도 느립서. 인왕쳐서님도 느립서. [요령]

10)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289-290
 쪽.

11)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09. 228쪽.

연직스제 월직스제 일직스제님 느립서
 옥황은 금부도서 저싱 이원스제, 이싱 강남스제 나립서. [요령]
 요왕국은 부원국스제님 느립서. [요령]
 맹도맹감 삼처서님도 느립서. [요령]
 시왕부린 스제 스제님 안동헌 처서님, [요령]
 김해 김칩 영혼 들앙 간 처서님, [요령]
 나주 정칩 집안 안 들앙 간 영혼 안동헌 처서님도 느립서. [요령] (서순
 실 구송)¹²⁾

이중춘 심방의 ‘들어가는 말미’에 등장하는 맹감은 대체적으로 세 종의 맹감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창세와 관련한 맹감, 2) 방위 관장의 맹감, 3) 저승차사와 관련한 맹감이 그것이다. 천황, 지황, 인황은 천지 창조와 관련된 관념이다. 이에 속하는 맹감들이 열두 맹감, 열한 맹감, 아홉 맹감이 있다고 관념한다. 두 번째는 육지의 오방신장과 같이 방위를 관장하는 신격으로 맹감을 말하고 있다. 세 번째는 차사, 사자와 관련한 맹감을 말한다.

이용옥 심방의 ‘들어가는 말미’는 앞서 이중춘 심방이 제시한 1) 천지 창조 관련 맹감, 2) 방위 관장의 맹감과 더불어 3) 영역과 생업 관련 맹감을 말하고 있다. 산을 관장하는 산신맹감, 물을 관장하는 용왕맹감, 배의 안전을 지키는 선왕맹감, 농업을 하는 이들의 세경맹감, 공부하는 이들의 책불맹감, 삼승할망을 하는 집의 불도맹감, 심방집의 당주맹감이 그것이다. 마치 서울곳의 ‘대감’처럼 관직, 직분, 직성과 관련한 신격으로 맹감이 쓰이고 있다.

서순실 심방의 ‘들어가는 말미’는 저승차사와 관련한 맹감으로 축약되어 있다. 제주도 무가에서 가장 빈번히 ‘맹감’이 쓰이는 용례가 삼맹감

12) 강정식 외,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보고서, 2008. 576쪽.

삼체스'이다. 즉, 세 분의 맹감과 세분의 저승체사를 가리킨다. 이것은 저승차사(사자)와 달리 맹감이라는 존재가 독자적으로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풀이의 내용이나 다른 무가에서도 '맹감'의 독자적인 역할들이 밝혀지지 않는다.¹³⁾ 그래서 보통 저승차사(사자)와 비슷한 존재로 인지한다.¹⁴⁾

정리해서 보자면 이중춘, 이용옥 심방이 구연한 무가에는 다양한 맹감의 용례가 등장하는데, 서순실 심방이 구연한 무가에는 저승사자와 관련한 용례로만 축약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이 무가가 어떤 맥락 속에서 채록이 되었는가와 연관된다고 보여진다. 이중춘과 이용옥 심방은 자연스레 굿 속에서 진행되는 무가를 채록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여러 본풀이를 채록하는 가운데 하나로서 구연한 것이다. 이에 반해 서순실 심방의 <맹감본풀이>는 시앙맞이 제차 속에 존재하는 액막이 과정에서 불러진 것이다. 따라서 이중춘, 이용옥 심방은 <맹감본풀이>가 구연되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말미가 들어간 반면, 서순실 심방의 말미에는 저승 존재로서의 맹감으로만 강조되어 구송된다. 이중춘 심방이 큰굿 시앙맞이에 따르는 액막이 제차에서 구송한 내용을 보면 이 점이 뚜렷해진다.

방액 방액 삼거리 <요령> 체스님네 느리저

13) 이와 유사한 신격으로 서울곳의 '중디'와 '삼성'이 있다. 서울곳의 저승사자 굿거리인 '사재삼성'에서 사재와 함께 청배되는 신격들인데 무가 속의 명칭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직능이 묘사되지 않은 신격이다. 망자의 죄를 판단하는 시왕, 망자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와 달리 이들의 직능은 모호하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 차사와 다른 존재로서의 맹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14) 현용준, <맹감본풀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맹감이란 '명관(冥官)' 또는 '명감(冥監)'의 와음(訛音)으로 보이며, 그 본풀이의 내용이나 액막이 제차의 내용으로 보아 저승의 사자, 곧 차사의 이칭(異稱)인 듯하다."

천왕(天皇) 처서 관장님도 ㄴ립서,
 지왕(地皇) 처서 관장님도 ㄴ립서,
 인황(人皇) 처서 관장님도 ㄴ립서.
 연직스재(年直使者), 월직(月直)스재, 일직(日直)스재,든
 시직스재(時直使者) 관장님도 ㄴ립소. <요령>
 옥황은 금부도사 저성은 이원스재
 이성은 강림스재 두엔부원군 삼처서 관장,
 맹두맹감 삼처서 관장님,
 본당처서 관장, 신당처서관장, 삼신왕 처서관장 <요령>
 스신왕 처서 관장님 ㄴ립서.
 짐해 짐칩의 영혼덜 들앙간 처서 관장님네,
 정주 한칩의 영혼덜 들앙간 처서 관장님네 <요령>
 으든 으듬은 비꿀스재, 이른 으듬은 바쁜 스재,
 시왕 두원 삼맹감 삼체스님 <요령>
 시왕 두원 <요령> 맹두맹감 삼처서 관장님이라근
 맹두맹감 삼처서에 많이덜 ㄴ립소서.¹⁵⁾

이 세 심방의 무가 문면을 종합해보면 결국 제주도 무속에서 ‘맹감’은 단일한 의미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의 신격으로 쓰인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하겠다.¹⁶⁾ 앞서 제보자들이 관념하는 ‘맹감’까지 더해지면 실로 다양한 ‘맹감’의 정의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생업 풍요신으로서

15) 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557쪽.

16) 이런 복합적인 신격은 제주도만의 특징은 아니다. 가장 뚜렷하게 복합적인 신격을 가진 것이 서울곳의 ‘대감’이다. 관직, 직업 처럼 독자적인 영역을 담당하기도 하고, ‘맞이’단위의 큰 곳에 부속적으로 따르는 ‘대감’도 있다. 제주도의 ‘맹감’, 서울곳의 ‘대감’은 마치 신격의 접미어처럼 다양하게 붙어 쓰이는 특징이 있으면서도, 무엇보다 직업 내지는 생업과 관련된 재수(財數)의 신격이라는 공통점이다. 이런 점에서 ‘맹감’이 육지의 대감 신격의 변형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제주도에서는 이 ‘맹감’이 죽음의 세계에도 쓰여 저승차사(사자)와 관련된 특징이 있다. 이 두 신격에 대한 본격적 비교 고찰은 원고를 달리 하여 논할 계획이다.

의 ‘맹감’, ‘수렵신으로서의 맹감’, ‘액막이신으로서의 맹감’, ‘천지창조와 관련한 맹감’, ‘방위와 관련한 맹감’, ‘직업과 관련한 맹감’, ‘저승사자와 관련한 맹감’이 그것이다.

2.3. 의례 맥락 속에서의 ‘맹감’

앞서 다양하게 정의되는 ‘맹감’의 의미와는 달리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맹감’의 쓰임은 시왕맞이 중 액막음(이) 제차에서 불려지는 <맹감본풀이>에서이다. 앞서 살핀 독립된 의례로서 ‘맹감코스’는 그 제의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제보만 있을 뿐 구체적인 현지 조사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현용준이 안사인을 통해 그 제차 구성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¹⁷⁾

- | | |
|-------------|-----------------------|
| 1. 공선가선 | 8. 세경본풀이 |
| 2. 날과 국 섬김 | 9. 균용놀림 (일월조상이 있는 경우) |
| 3. 집안연유 닦음 | 10. 상단숙임 (사만이본풀이) |
| 4. 군문열림 | 11. 소지사름 |
| 5. 정데우 | 12. 문전액막음 |
| 6. 산받아 분부사뤄 | 13. 각도비님 |
| 7. 추물공연 | 14. 도진 |

이 고사의 중심에는 세경본풀이가 중심에 놓여있고, 조상이 있는 경우

1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진』(개정판), 각, 2007. 423-425쪽. 이 자료는 제주도 큰굿 무가 채록에 주안점이 있어서 중복되는 제차의 무가를 생략하고 있다. 그래서 중복되더라도 그 의례에 따라 무가가 달라질 수 있는 양상을 살필 수 없다. ‘맹감’ 무가가 생략되어 있고, 제차의 제목만 있다.

군웅을 놀린다. <맹감본풀이>는 상단숙임 속에서 부분적으로 구송된다. 그 부분의 내용 설명이 유일하게 있어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옥황상제부터 젓드리 앓혀가며 “상단 도숙읍서”해오다가 삼맹감 차례가 되면] 삼맹감 삼체스 도숙어 하전케 돼였는디, 이 오늘날 이 주당에 축원홉기는 어느 즈손이 원맹이 썩르다 홉기로 맹감을 우로적선홉네다. 옛날옛적 스만이 어떠어떠했던 법으로[스만이 본풀이 간단히 함] 축원원정홉네다. 삼맹감이 도숙어 하전흐는디 즈손에 숙원된 원정지 소지로 축원홉네다.¹⁸⁾

이 문면에 따르면 <맹감본풀이>는 이 의례를 의뢰한 집안의 자손 명이 짧다고 예상되어, 그것을 풀고자 하는 액막이의 목적으로 구송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앞서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맹감코스’는 농업이나 수렵의 풍요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행한다고 했는데 위의 사례에서 <맹감본풀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농업과 관련하여 <세경본풀이>가 주된 구실을 하고, <맹감본풀이>는 액막이의 구실을 할 뿐이다. 그럼에도 이 의례의 제목이 ‘맹감’이라고 한 것 또한 의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맹감코스’의 원래적인 내용이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¹⁹⁾

오늘날 <맹감본풀이>는 시왕맛이 또는 시왕맛이를 포함하는 큰굿의 액막음에서, 당굿 중 도액막음에서 구송된다. 다음의 큰굿 중 시왕맛이 제차를 살펴보면 <맹감본풀이>가 액막음의 과정에 불려지는 무가이며, 저승차사를 청배하고, 저승의 길을 닦는 ‘질침’의 앞서 구송됨을 알 수

1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2007. 424쪽.

19) 이 의문은 다음 장에서 분석하게 될 <맹감본풀이>의 내용과 의미와 관련해서도 더욱 명확해진다.

있다.²⁰⁾

- | | |
|-----------------|-------------------|
| 1. 초감제 | 6. 나카도전 침 (지장본풀이) |
| 2. 방광침 | 7. 삼천군병질 침 |
| 3. 체스본풀이 | 8. 질침(므른질침) |
| 4. 시왕 도올리고 석살림 | 9. 체스본풀이 |
| 5. 액막이 (사만이본풀이) | 10. 메어듬 |

당곳 중 도액막음의 사례로는 칠머리당영등굿을 들어볼 수 있다.²¹⁾

- | | |
|---------|---------|
| 1. 초감제 | 6. 도액막음 |
| 2. 분향늬 | 7. 영감놀이 |
| 3. 추물공연 | 8. 도진 |
| 4. 요왕맞이 | |
| 5. 씨드림 | |

본격적인 굿을 다 한 뒤에 그 말미에 액막음을 하는 속에서 <맹감본풀이>가 구송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실제 제보자들과 옛 기록들을 더듬어 보면 <맹감본풀이>가 ‘맹감코스’와 같은 독립된 의례 속에서 구송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굿속의 액막이 과정에서 구송됨을 볼 수 있었다. 단순히 의례만의 축소뿐 아니라 ‘맹감’의 성격 또한 기능 범위가 축소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즉,

20)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진』(개정판), 각, 2007.

21) 문무병 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맹감코스’에서는 ‘생업 풍요신으로서의 맹감’, ‘수렵신으로서의 맹감’의 의미가 중요했으나, 오늘날 전승 속에서 살아있는 맹감의 성격은 ‘액막이로서의 맹감’으로만 축소되어 있다.

3. <맹감본풀이>의 구조와 의미

<맹감본풀이>는 의문의 본풀이다. 실제 어떤 신의 본을 푸는 것인가 그 신격에 대한 해명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맹감본풀이>이라고 명명하면 ‘맹감신’의 본풀이고, <스만이본풀이>라고 명명하면 ‘스만이’의 본풀이라는 의미를 담는다. 이 두 신격이 동일하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서로 다른 존재이기에 구분하여 명명할 필요성이 생긴다. 아울러 이 본풀이를 구송하는 의례적인 맥락과 본풀이의 내용이 일치하는가도 의문이다. 또한 왜 이 본풀이는 장귀가 아닌 요령을 들고 본풀이를 구송하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위하여 먼저 <맹감본풀이> 또는 <스만이본풀이> 무가에 집중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채록된 본풀이를 정리하고, 그 무가가 어떤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밝힌다.

3.1. <맹감본풀이> 이본 정리 및 편차

본 연구자가 확보한 <맹감본풀이>의 자료는 12편으로,²²⁾ 이를 채록 내지는 조사 순서대로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²³⁾

22) 권태효,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민속학』 32집, 한국민속학회, 2000에서는 6편의 맹감본풀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본 비교를 한 바 있었다. 그 논문 이후로 신규로 추가된 자료들이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다.

연번	제 목	구 연 자	채 록 자	조사(녹음)시기
1	冥監本解	고대중	장주근	1962
2	맹감본	이춘아	진성기	1956-63년에 채록
3	맹감본	변신생	진성기	"
4	맹감본	한태주	진성기	"
5	액막기	김만보	현용준	1965
6	스만이본풀이	안사인	현용준	1969
7	명감(스만이)본풀이	이중춘	문무병	1991
8	맹감본풀이	이중춘	강정식	1991 (위와 동일)
9	명감(스만이)본풀이	이중춘	문무병	1994
10	맹감(스만이)본풀이	이중춘	문무병	2001 (위와 동일)
11	사만이본풀이	서순실	강정식 외	2006
12	맹감본풀이	이용옥	허남춘 외	2008

12개의 이본 중 8)의 자료가 7)과 같은 음원의 것이고, 10)의 자료가 9)의 자료와 동일한 음원의 것이므로 본고에서 분석하게 될 자료는 10 편이다.²⁴⁾ 이들 10편의 채록편의 경우 대체적으로 본 연구자가 생각하

23) 이본별 출처는 다음과 같다.

- 1)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韓國の民間信仰-資料篇』, 金花畝, 1974. 259-279의 것 재수록)
 - 2), 3), 4)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5) 현용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자료-제주도무당굿놀이』,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3집』, 문화재관리국, 1989.
 - 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2007.
 - 7)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8) 강정식, 『한국음악 제31집 제주도 칠머리당굿』, 국립국악원, 2000
 - 9) 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 1994년 동김녕 문순실택 중당클굿』, 제주전통문화연구원, 2001.
 - 10) 문무병 외, 『제주도의 무속음악』,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 11) 강정식 외,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보고서, 2008.
 - 12)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09.
- 24) 7), 8)의 자료는 1991년 KBS 녹음 소장의 자료를 채록한 자료이다. 이를 1998년,

기에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서사 단락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미세한 편차가 있을 뿐이다. 그 서사 단락은 다섯 가지이며, ① 스만의 총 구입, ② 해골의 습득, ③ 해골에 대한 정성과 부의 축적, ④ 스만의 죽음 직면, ⑤ 해골의 도움으로 죽음 모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스만의 총 구입

<맹감본풀이>의 첫 서사단락은 조실부모한 스만이 밥을 빌어먹고 살다가 부인을 만나지만, 역시나 배고픔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어느 날 부인이 자신의 머리를 잘라 스만에게 건네주며 팔아서 식량을 사오라 부탁하지만 사만이는 총을 사온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모든 이본이 공통적이다. 다만 이본에 따라 스만의 출생, 스만이와 부인의 결혼 방식, 총을 구입하기 위한 돈의 마련에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스만의 출생에 관련하여 스만이 부자집(한태주), 내지는 정승의 태생(이춘아)라는 설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핵심은 조실부모하여 경제적인 결핍을 당한다는 설정이고, 밥을 빌어먹는 과정에서 같은 처지의 부인을 만난다는 것이다. 보통 스만이와 부인은 빌어먹다 만나는 것으로 그려지나, 김만보, 안사인 구연본에서는 동네의 어른들이 짝

2000년 각각 다른 연구자에 의해 채록되었다. 내용 차이는 없으며, 미세한 표기 차이만 있을 뿐이다. 9)는 1994년의 서순실 심방의 신긋 전체를 채록한 것이고, 10)의 수록되어 있는 무가는 2004년에 있었던 고복자 심방의 신긋에서 몇 가지 본풀이만을 채록한 것이었다. <맹감본풀이>를 비교해보면 똑같이 이춘준 심방이 구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무가가 일치하고 있어 아마도 2004년의 자료가 아닌 1994년의 자료를 반복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5)의 김만보 구연본은 이전 선행 연구에서 검토하지 않았던 자료이다. <제주도무당굿놀이>라는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서 찾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출판한 『제주도 무가』 CD 9에 본 무가가 실려 있고, 해설집에 이 무가가 『중요무형문화재지정자료-제주도무당굿놀이』,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에 실려 있음을 기록하고 있었다.

을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 총을 구입하기 위한 돈의 마련은 대부분의 이본들이 부인의 머리카락을 잘라 판 돈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고대중 구연본에서는 장제대감에게 돈을 꾸어오거나, 한태주 구연본에서는 부인이 천년장제에게 돈을 꾸어서 주었지만 그 돈을 남을 돕는데 써버리고 마침내 머리를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춘아 구연본은 가장 이질적인 이본인데, 바로 첫째 서사 단락에서 구연이 끝난다. 청태산 마귀할으망이 나타나 머리 판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총을 사서 사냥을 하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사냥을 잘하여 잘먹고 잘살았다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

② 해골의 습득

구입한 총을 가지고 스만이가 익숙하지 않은 사냥을 가지만 번번히 실패하다가 문득 해골을 만나고, 그 해골이 지시하는 대로 조상을 삼기 위하여 집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이 두 번째 서사단락이다. 이본별로의 차이점은 해골을 어떻게 만나는가, 해골이 어떤 존재인가이다.

고대중, 변신생 구연본에서는 사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한 스만이가 잠 들고, 꿈속에서 해골이 나타나 자신의 존재와 바라는 바를 말한다. 그리고 날이 새어 실제 그 해골이 어디선가 굴러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중춘, 서순실 구연본에서는 간 밤에 부르는 소리가 있었으나 대답하지 않자, 그 다음날 해골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태주, 김만보 구연본에서는 산에서 밤을 샌 후 직접 해골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용옥 구연본에서는 해골이 부르는 소리에 잠을 깨고 해골이 묻혀있는 곳을 말해주어, 직접 가서 해골을 파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안사인 구연본에서는 산길을 걷다 밭에 채이는 것이 있어 땅을 파보니 해골이 나왔고, 해골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만이가 판단하여 집

으로 모셔온다고 되어 있다.

스만이가 구입한 총이 실제로는 해골의 총이었음을 많은 이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중, 이중춘, 서순실, 변신생, 한태주 구연본에서 그러한 대목이 존재하고, 본인이 서울 백정승의 아들이었음을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이본별 차이가 있다. 고대중 구연본은 백정승의 아들이었고 일등 포수였는데 자신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했다. 이중춘 구연본에서는 광풍, 한태주 구연본에서는 사냥 왔다 잠시 총을 나무에 받쳐 둔 사이 도둑이 와서 자신을 쏘서 죽었다고 했다. 이용옥 구연본에서는 사냥하다 쭉고 배고파서 죽었다고 했고, 서순실 구연본에서는 자세한 이유가 구연되지 않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살아생전 사냥을 했던 백정승 아들이 불의한 사고로 인해 죽음을 당하였고, 스만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총의 원주인이었음이 많은 이본들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다.

③ 해골에 대한 정성과 부의 축적

산에서 해골을 가져왔지만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을 염려하여 처음에는 집 밖에 놓았던 것을 집으로 모셔와 조상 모시듯 모시고, 그 이후로 사냥이 잘되어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이다.

이본별로 주먹닭(고대중), 몰광돌(변신생, 한태주), 멀쿠실낭(이중춘, 서순실, 이용옥) 등으로 차이를 보이나 집에 바로 가져오지 않고 임시적으로 놓아두었다는 내용이고, 결국 이것을 잘 모셔두고 명절마다 정성 드림에 따라 사냥이 잘되었다는 내용은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④ 스만의 죽음 직면

해골을 위하고 사는 스만이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스

만이를 잡아갈 저승사자가 오게 된다는 것이 이 단락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만이 죽게 되는 이유에 대한 이본별 편차가 있다. 고대중, 이중춘, 서순실 구연본에서는 해골에만 정성을 드리고, 인간 조상에는 소홀하여 인간 조상들이 옥황상제(고대중) 또는 염라대왕(이중춘, 서순실)에게 하소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차사에게 스만이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하게 된다. 변신생, 한태주, 안사인 구연본에서는 스만의 명이 30 또는 33에 정해져 있기에 잡아오라는 명령을 한다. 이용옥 구연본에서는 조상의 하소연이 있어 살펴보니 스만의 정명임을 알게 된다고 하였고, 김만보 구연본에서는 산 짐승을 잡은 죄로 압송해보니 마침 정명이었다. 정명에 의해서 죽음에 직면하느냐, 조상의 발동으로 죽음에 직면하느냐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사만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죽음의 문제를 다음 단락과 같이 해골에 의해서 풀게 된다.

⑤ 해골의 도움으로 죽음 모면

스만을 잡으러 삼차사가 온다는 사실을 해골이 미리 알고 그 대비책을 알려주어 죽음에서 모면하고 장수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 단락의 핵심이다. 해골의 대비책은 곳을 하고, 또 차사를 대접할 상을 차려 대접하게 하는 것이다. 대접을 받은 삼차사가 결국은 정명이 적혀있는 문서를 조작해줌으로써 스만의 목숨이 연장된다는 내용이다.

이본별로 스만이 대신 대신대명의 의미로 대신 잡아가는 인물들이 존재하며 그 명칭이 각각이다. 고대중 구연본에서는 뿔 세 마리, 변신생 구연본에서는 유스만, 한태주 구연본에서는 오만골 오스만, 이중춘의 1991년 구연본에서는 스필이, 1994년 구연본에서는 오만이, 서순실 구연본에서는 오만이로 나타난다.

고대중, 변신생 구연본에서는 스만이 죽음을 모면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래산 스만을 잡기 위하여 삼체사 또는 강림이가 솟을 강물에 썰는 속임수로 잡아올 수 있다는 내용이 첨가된다. 또 서순실, 이중춘 1994년본, 이용옥 구연본에서는 동방색이 등장을 시키나 이것이 무슨 관계로 첨가되었는지 분명하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입수할 수 있었던 10편의 이본들을 정리한 결과 이춘아 구연본을 제외한 모든 구연본들은 ① 스만의 총 구입, ② 해골의 습득, ③ 해골에 대한 정성과 부의 축적, ④ 스만의 죽음 직면, ⑤ 해골의 도움으로 죽음 모면이라는 단락을 공유하고 있다. 부분적인 편차가 있더라도 정리된 단락의 의미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3.2. <맹감본풀이>의 구조와 의미

<맹감본풀이>의 구조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본풀이는 신의 내력을 푸는 것이므로 이 본풀이의 주된 신격을 중심삼아 읽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본풀이의 주된 신격이 과연 누구인가가 문제이다. 본풀이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맹감’인지 ‘스만이’인지, 아니면 무가에서 중요히 등장하는 ‘해골’인지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 차사로서의 맹감이 주된 신격이라고 판단하면, <차사본풀이>와의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과연 <맹감본풀이>가 의례 속에서 차사의 청배를 목적으로 불리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차사와 동일 성격의 ‘맹감’의 본풀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스만이’라는 존재의 본풀이인가 생각해본다면, 일단 ‘스만이’가 신은 아니다. 다만 액막이를 통해 목숨을 연장했다는 액막이의 모범을

보인 비범한 인물일 수는 있다. 비범한 인물의 본풀이로 보기에 일반적으로 신의 내력을 보는 본풀이로서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해골’이 주된 신격인가하면, 후반부의 정명 연장의 서사가 길어진 문제점이 있고, 또 액막이라는 곳과 ‘해골’은 직접 연관성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맹감’, ‘스만이’, ‘해골’ 그 어떤 대상도 주된 신격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애매함이 바로 <맹감본풀이> 해석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주된 신격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맹감본풀이>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었으므로, 무가의 순차적인 내용에 따라 그 구조를 파악하는 차선책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맹감본풀이>의 핵심 서사단락은 스만이와 해골의 관계 속에서 무가의 내용이 구성된다. 영웅서사시의 후대형인 범인서사시의 구조처럼 주인공인 스만의 1차 고난인 배고픔이 해골을 섬김으로 극복되고, 죽음이라는 2차 고난이 또다시 해골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난-극복-고난-극복의 양상으로 ‘스만이’가 부각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런 극복의 과정이 단순히 원조자가 아닌 신격이라는 점이 해석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 신격은 다름 아닌 사냥신이라 할 수 있는 해골이다. 그리고 그 해골은 자신을 조상으로 섬겨서 모셔줄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게 되면서 첫 번째 가난의 문제를, 두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스만을 기준으로 보면 신물(神物)을 획득한 자가 주력을 바탕으로 여러 고통들을 헤쳐 나가는 통과의례적인 서사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반대로 이 서사를 해골에 주안점을 맞추면 사냥을 업으로 삼는 자가 사냥신을 잘 대접하여 두 번의 영험함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된다. 즉, 사냥신의 영험함을 증명하는 본풀이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가가 상당한 비중으로 저승 삼채사를 잘 대접하

여 죽음을 모면하는 후반부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고, 액막이라는 의례와의 연관성을 생각해보면 저승 삼채사 대접 부분을 소홀히 해석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각도에서 이 <맹감본풀이>는 단일한 신격을 대상으로 한 무가가 아닌 두 신격에 대한 본풀이가 중첩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 결합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이다.

본 연구자는 <맹감본풀이>가 두 신격에 대한 본풀이 내지는 신앙 관념이 중첩되었다고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자 한다. 먼저 그 둘을 각각 나누어도 의미를 잃지 않기 때문임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각각의 무가가 지향하는 의례의 목적이 뚜렷하고, 실제 독립된 의례가 있다는 점이다.

<맹감본풀이> 무가가 두 신격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판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가가 두 부분으로 분절될 수 있으며, 그 분절에 따라 중심 되는 신격 내지는 무가가 지향하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무가의 전반부는 해골 습득을 통해 사냥꾼으로 성공한다는 무가이고, 후반부는 저승차사를 잘 대접하여 정명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후반부도 해골의 예시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로 처리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무가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맹감본풀이>와 유사하다고 알려진 전라도의 <장자풀이>, 함경도 <황천혼시>와 대비해보면 공통되는 부분과 차별되는 부분이 명확히 나뉘어짐을 살필 수 있고, 그 나뉘어지는 부분이 바로 전반부 사냥신으로서의 해골과 후반부의 저승사자이다.

전라도 <장자풀이>는 망자를 천도하는 곳인 씻김굿 중 고티이 과정에서 구송되는 무가이다. 망자가 이승에서 못다 풀 한(恨), 맺혀있는 고통 등을 풀어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씻김과 함께 고티 푸는 것은 전라도 씻김굿의 특징이 된다. 고티이 과정에서 <장자

풀이>를 구송하는 이유는 죽음의 액을 면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전국의 오구곳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저승사자에 대한 의례이기도 하다.²⁵⁾ 전라도 <장자풀이>는 사마장자라는 인물이 저승사자를 잘대접하여 죽음의 액을 면한다는 내용이다.²⁶⁾ 제주도 <맹감본풀이>와 대비해본다면 <맹감본풀이>의 전반부가 없는 상태이다. 제주도 <맹감본풀이>는 전반부가 있기에 죽음에 처하는 인물이 해골의 도움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 그러나 전라도 <장자풀이>는 누구의 도움도 아닌 꿈을 꾸고 그것을 점쟁이에게 문복함으로써 대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전반부가 있는 <맹감본풀이>는 해골의 역할이 강조되는 반면, <장자풀이>는 저승사자를 대접한다는 점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맹감본풀이>를 기준으로 <장자풀이>를 바라보면 전반부가 퇴색되어 전파되었다는 인식을 할 수 있고, <장자풀이>를 기준으로 <맹감본풀이>를 바라보면 후반부의 무가에 전반부를 첨가했다고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맹감본풀이>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무가가 내용적으로 분절될 수 있다는 점과 ‘해골’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 정도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함경도 <황천혼시>는 <장자풀이>에 없는 해골이 등장하여 더 <맹감본풀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²⁷⁾ <황천혼시> 무가에서는

25) 김형근, 『남해안굿 갈래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08. 286-288쪽.

26) 장자풀이도 이본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내용은 비슷하다. 장자풀이의 이본별 비교는 이 원고의 핵심적 사안이 아니며, 또 선행연구에서 논해진 바가 있어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홍태한, 『장자풀이 무가 연구』, 『한국문화연구』 4집, 경희대민속학연구소, 2001.)

27) <황천혼시>는 두 편이 전해진다. 1936년 김쌍돌이 구연의 <황천혼시>(손진태, 『朝鮮神歌遺編』, 郷土研究社, 1930)와 1965년 조사된 강춘옥 구연의 <혼쉬굿>(장주근·임석재,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3호-관북지방무가』,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3집』, 문화재관리국, 1989.)

삼형제가 주인공이다. 부모를 잃은 이들이 해골을 발견하고, 질문어 주거나(강춘옥 구연본) 집에 가지고 와서 잘모신다.(김쌍돌이 구연본) 시간이 흘러 이 해골이 이들의 꿈에 나타나 죽음을 알리고, 대책을 말해준다. 대책대로 저승사자를 위한 상을 차려 대접하고, 이른바 ‘혼시’를 잘 드려 죽음의 액을 면한다. 이런 양상에 따르면 <맹감본풀이>의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를 갖추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맹감본풀이>와 <황천혼시>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수렵신으로서의 해골’이 <맹감본풀이> 전반부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황천혼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맹감본풀이>의 전반부 내용이 ‘수렵신으로서의 해골’에 대한 신앙 관념을 가지고 있음은 뚜렷하다. 첫 번째로 총을 사서 사냥에 나서지만 제대로 성과를 얻지 못하다가 해골을 모시면서 사냥이 잘되었다는 점, 두 번째로 스만이가 구입한 총이 다름 아닌 그 해골의 총이었다는 점, 세 번째로 스만에게 해골은 ‘내게 태운 조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황천혼시>는 삼형제가 주인공이 되고, 김쌍돌이 구연본의 경우 ‘三兄弟神의 노래’라는 부제와 함께, 이들이 죽은 후에 ‘혼수성인’이 되었다고 했다.²⁸⁾ 따라서 <황천혼시>에서는 삼형제에 초점이 놓여져 있다.

결과적으로 <장자풀이>, <황천혼시>가 <맹감본풀이>와 유사하지만 <맹감본풀이>에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수렵신으로서의 해골’은 없다는 점이고, 이것이 <맹감본풀이>의 특징이 된다. 그럼에도 <맹감본풀이>는 후반부 저승사자를 잘대접하여 정명을 늘리는 부분의 서사가 길고, 무가의 명칭도 해골 보다는 저승사자 내지는 죽음의 액을 면한 스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으로 인해 <맹감본풀이>가 두 신격

28) 손진태, 『朝鮮神歌遺編』, 郷土研究社, 1930. 28쪽.

에 대한 본풀이 내지는 신앙 관념이 중첩되었다고 의심할 여지를 두고 있다.

<맹감본풀이>가 두 신격에 대한 본풀이 내지는 신앙 관념이 중첩되었다고 보는 두 번째 근거는 각각의 무가가 지향하는 의례의 목적이 뚜렷하고, 실제 독립된 의례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핀 [맹감의 용례와 의미]에서 보았듯이 <맹감본풀이>는 ‘맹감코스’와 일반굿 중의 액막이 제차에서 구송된다고 했다. 이제는 전승이 끊긴 맹감코스의 중요한 의미는 수렵신으로서, 생업신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단순히 제보자에 의한 증언만이 아니라 실제 <맹감본풀이>의 전반부 내용이 이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전반부는 ‘수렵신으로서의 해골’에 대한 신앙 관념이다. 비단 후반부도 해골신의 도움으로서 얻어내는 결과이므로 전체적으로 <맹감본풀이>는 ‘해골’신에 대한 본풀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본 연구자가 보기에 <맹감본풀이>의 ‘해골’은 수렵이라는 직업 조상신이라고 보여진다. 모든 직업자들의 대표 신격이 아닌, 사냥을 업으로 삼는 이들만에게 한정되어 있는, 이른바 특수 직업 조상신이다. 마치 무당들이 ‘말명’의 본을 풀고, 제주도에서 도살업을 하던 이들이 거무영청굿을 하는 것처럼 ‘사냥’을 주업으로 삼는 이들의 굿에서는 이 <맹감본풀이>를 풀어야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맹감본풀이>의 여러 이본들에서 스만이가 죽음에 처하는 것이 자연스런 정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조상을 잘 대접하지 않음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바로 ‘직업조상’과 ‘인간조상’과의 갈등을 의미하며, 일반사람들처럼 인간조상보다는 직업조상을 우위적으로 잘섬겨야 한다는 점을 <맹감본풀이>가 말해주고 있다. 사냥을 하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맹감본풀이>는 앞

서 [맹감의 용례와 의미]에서 ‘산신맹감’이라는 용법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추측하건데 이것이 <맹감본풀이>의 원형적인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수렵이라는 직업이 더 이상 유효해지지 않음에 따라 그 전승 맥락을 잃고 일반적인 생업신으로 확장되고, 이제는 액막이의 신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²⁹⁾

<맹감본풀이>의 후반 부분은 <장자풀이>, <황천혼시> 무가와 유사하게 저승사자를 대접함으로써 죽음을 모면하는 내용을 삼고 있다. 그러나 <맹감본풀이>와 <장자풀이>, <황천혼시>의 큰 차이는 의례 맥락이다. <맹감본풀이>는 ‘맹감코사’이거나, 액막이에 쓰인다. 그런데 <장자풀이>, <황천혼시>무가는 망자천도굿인 씻김굿과 망목굿에서 불러지는 것이 큰 차이이다. <맹감본풀이>가 망자천도굿인 시왕맞이에서 불러질 수 있다는 것은 후반부 내용이 있기에 가능하지만, 이 맥락에서 전반부의 이야기들은 해석하기 힘들어진다. <맹감본풀이>의 전반부가 없는 <장자풀이>나, 전반부의 해골이 등장하되 수렵신으로서 역할하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이다. <장자풀이>에서는 아무리 탐욕스런 인간이어도 저승사자에게 인정 사정을 잘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의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무가라면, <황천혼시>에서는 삼형제가 ‘혼수’의 신이 됨을 들어 그들의 본풀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맹감본풀이>는 사만이가 신이 되는 설정도 없으며, 전반부의 해골을 묻어두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라 하겠다. 의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맹감코사’라는 의례가 있음을 떠올린다면 ‘해골’은 반드시 해석되어야 할 존재이다.

29) 이런 관점에서 ‘맹감’이 저승사자와 비슷한 의미의 명감(冥監), 명감(命監)의 와음이기 보다는 그 자체로 수렵을 업으로 삼는 이들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의심이 된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맹감본풀이>가 두 신격에 대한 본풀이 내지는 신앙 관념이 중첩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무가에서 확연히 구분이 가능하며, 구분된 각각이 독립된 의미가 있고, 또 관련 의례가 있음을 들었다. 또한 <맹감본풀이>와 유사하다고 알려진 <장지풀이>, <황천혼시>와 대비를 통해 <맹감본풀이>만의 독자적인 신앙 관념이 있음을 밝혔다. 이렇게 두 가지의 신앙 관념이 복합된 것은 본래의 의례 맥락이 해체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추측하였다.

4. 제주도 본풀이 아카이브 센터를 기대하며

저승사자를 잘 대접한 스만의 신화로 알려져있는 <맹감본풀이>. 수렵수호신에 대한 본풀이가 될 수도, 액막이 의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무가가 될 수도 있는 복합성이 <맹감본풀이>의 실상이다. 그러나 <맹감본풀이>의 핵심은 ‘해골’에 있고, 그 해골은 수렵을 업으로 하는 직업조상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실제 본풀이에 부합되는 의례는 ‘맹감코사’였고, 오늘날 시왕맞이의 액막이 등에 불리는 것은 후대적인 변형이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따라서 <맹감본풀이>의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는 ‘사냥’, ‘해골’이다.

지금까지 본풀이 연구가 그 서사성의 특징으로 인해 무가 자체만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의례와 부합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맹감본풀이>가 저승사자에 대한 본풀이가 될 수 없다는 의례 실상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맹감’, ‘죽음’, ‘저승사자’라는 카테고리 속에 우리의 인식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의례의 맥락 속에서 본풀이의 기능과 그 본풀이의 의미가 통하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고 여겨진다.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제주도 곳 실상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기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미천한 공부이지만, 본풀이를 공부하면서 퇴적층처럼 시간을 쪼개어 쌓아온 신비로움이 느껴졌다. 감상적인 신비를 이성적인 분석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학문의 길이지만, 증명하기에 부족한 내공으로 자료의 부족만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드러다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곳이 살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고, 풍부한 신화가 전승되고 있는 공간이므로 시급하게 ‘제주도 본풀이 아카이브 센터’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흩어져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또 지금도 날이 다르게 사라져가는 현장을 조사하여 아카이빙을 해야 한다. 오늘 이 학술대회의 주최측인 탐라문화연구소가 곧 그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기관임을 <맹감본풀이>의 자료들을 모으면서 또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서지만 마땅히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고, ‘본풀이’의 가치가 정량적으로 환산되지 않기에 중요성을 인지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의 이 학술대회를 포함해 활발한 제주도 본풀이 연구들이 현실에 대한 시위 대열을 형성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 강정식, 『한국음악 제31집 한국의 굿-제주도칠머리당굿』, 국립국악원, 2000.
- 강정식 외, 『동북 정병춘대 시왕맞이』, 보고서, 2008. 576쪽.
- 권태효,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민속학』 32집, 한국민속학회, 2000. 151-194쪽.
- 김동섭 외,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32, 145쪽.
- 김현선,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 연구」, 『한국무속학』 10집, 한국무속학회, 2005. 95-130쪽.
- 김형근 · 김현선,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 『정신문화연구』 31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39-271쪽.
- 김형근, 「남해안굿 갈래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08. 286-288쪽.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289-290쪽.
- 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1994년 동김녕 문순실대 중당클굿』,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557쪽.
- 문무병 외, 『제주도의 무속음악』,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 서대석, 「서사무가연구」, 『국문학연구』 8집,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68.
- 손진태, 『朝鮮神歌遺編』, 郷土研究社, 1930. 28쪽.
-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 장주근, 『韓國の民間信仰-資料篇』, 金花舍, 1974. 259-279쪽.
- 장주근 · 임석재,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3호-관북지방무가」, 『무형문화재조사 보고서 3집』, 문화재관리국, 1998.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09. 228쪽.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집, 한국민속학회, 1997. 223-246쪽.
- 현승환, 「사만이본풀이 연구」, 『백록어문』 16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2000. 159-179쪽.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233쪽.

현용준, 「중요무형문화재지정자료-제주도무당굿놀이」,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3집, 문화재관리국, 199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2007. 423-425쪽.

현용준 외, 『제주도 무가 CD 해설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홍태한, 「장자풀이 무가 연구」, 『한국문화연구』 4집, 경희대민속학연구소, 2001. 35-56쪽.

Abstract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Jeju island <Mangambonpuri>

Kim, Hyung-Kun*

<Mangambonpuri> known as a myth of samani that treats the death angel well. The complexity of being bonpuri for a hunting patron saint or being a shaman song emphasizing the need of ritual to prevent misfortune is the truth of <Mangambonpuri>. However, the key of <Mangambonpuri> is in 'skull' and the skill emphasizes that an ancestor god hunts as a job. So, the ritual suitable to actual bonpuri was 'Mangamkosa'(shamanistic ritual for Mangam), and the reason why it is today called as a charm against Siwhangmaji seems to be the transformation of future generations. Therefore, the key words of <Mangambonpuri> are 'hunting' and 'skull'.

If bonpuri studies are conducted only about a shaman song due to its narrative characteristics, now the study suitable to the ritual is required. The reason is that although actual conditions of the ritual say that <Mangambonpuri> cannot be bonpuri, our perception is bonded in the categories such as the death angel, 'mangam', 'death', and 'the death angel. It seems to need to verify if the function and the meaning of bonpuri is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ritual. From this perspective, the more intensive field record about gut of Jeju island is required.

Jeju island is the last region with live gut and a place where rich

* Kyonggi University lecturer

myths are handed down, so that 'Jeju island bonpuri archive center' needs to be urgently built. Archiving should be made by collecting scattered data and searching the daily disappearing fields.

Key Words

Mangam, Mangambonpuri, samani, Siwhangmaji, skull, bonpuri

교신 : 김형근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경기대학교 국문학과
(E-mail : 2499125@hanmail.net 전화 : 018-583-0158)

논문투고일 2009. 11. 20.

심사완료일 2010. 02. 10.

게재확정일 2010. 02. 17.